

1세 영아의 언어와 놀이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Infant's Language and Play

김 명 순*

Kim, Myoung Soon

성 지 현**

Sung, Ji Hyun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relationship between language and play of 42 infants(21 boys and 21 girls) from 13 months to 23 months old and examined how their maternal language and play were related to the infants' language and play. The play of infant-mother and maternal language were videotaped at home. The MacArthur Communicative Development Inventory-Korean(MCDI-K; Fenson, 1991; Pae, 1993) was used to measure infant's language. The score of the infants' receptive language was higher than that of expressive language. Mean level of the infant's play was in the relational play, that is, he/she integrated two or more toys in an inappropriate manner during the play. There was no significant sex difference in the total language scores and in their play. The development of the infant's language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infant's play level. The maternal language and play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infant's language and play development.

Key Words : 영아의 언어(infant's language), 영아의 놀이(infant's play), 영아-어머니 놀이
(infant-mother play)

* 접수 2002년 4월 30일, 채택 2002년 5월 24일

* 연세대학교 아동학과 조교수, E-mail : kimms@yonsei.ac.kr

** 연세대학교 어린이생활지도연구원 연구원

I. 서 론

인간은 내적 언어와 기호체계로 자신의 사고를 나타낼 수 있게 되고, 지금까지 있었던 행동과 지각들이 내면화되어 정신적인 경험들에 대해 표상할 수 있게 된다(Piaget, 1968). 한편 Huizinga(1955)는 “생각하는 인간(Homo Sapiens)”과 같은 차원에 속하는 “호모루덴스(Homo Ludens)” 즉 놀이하는 인간을 주장했는데, 인간 사회의 중요한 원형적 행위에는 놀이 요소가 있으며 놀이의 기능에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한 투쟁과 어떤 것에 관한 표현이라는 대립적인 기능이 있다고 하였다.

영아기 동안 언어와 놀이의 발달적 순서는 보편적으로 나타나므로 발달정도에 대한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고, 두 가지 모두 영아의 표현수단으로서 의사소통의 기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Fenson, 1984; Fenson & Schell, 1986).

한편 언어심리학자들은 비언어적인 표상이 아동의 언어구조와 언어발달을 제한하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한다는 것을 이론(Bloom, 1973; Brown, 1973)으로 제시하고, 어떤 인지영역의 발달정도가 언어에서 표현과 같은 특정 부분의 습득을 예전하는데 기초가 되는지를 연구하였으나 일관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Bates, Benigni, Bretherton, Camaioni, & Volterra, 1979; Corrigan, 1978, 1979; de Villiers & de Villiers, 1988; Tomasello & Farrar, 1984). 따라서 언어 습득과 비언어적 영역에서의 발달간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그후 특정 시기에 언어적인 측면과 인지적인 측면이 세부적으로, 혹은 동일하게 관련되는지에 관한 연구들로 대치되어 왔고(Gopnik & Meltzoff, 1984, 1987), 이러한 연구 경향은 특히 영아의 놀이와 언어에 대한 연구들로 이어지고 있다(Tamis-LeMonda

& Bornstein, 1994).

영아의 언어와 놀이에 관한 연구들(Kelly & Dale, 1989; Nicholich, 1981; Tamis-LeMonda & Bornstein, 1994)에서는 언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아동이 상징놀이를 더 많이 하고, 상징놀이를 통해 언어와 몸짓의 발달 정도도 예측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언어는 놀이에서 가작화에 대한 이해를 평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하며(Harris & Kavanaugh, 1993), 놀이에서 사물에 대한 지식 또한 언어 발달과 관계가 있다고 한다(Lifter & Bloom, 1989).

최근에는 언어와 놀이발달이 성숙과 환경 모두에 의해 영향받는다고 보는 사회적 상호작용 주의 관점이 지지되고 있다. 즉 언어와 놀이 모두 상징적인 표상과 인지적인 기능을 필요로 하지만, 사회 문화적인 영향 또한 중요하다는 관점이다. 의사소통 상황에서 영아는 구어나 문어 상징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모든 감각이 제대로 협응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것들조차 효율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아직 미흡하다. 따라서 영아와의 의사소통에서는 대화상대자인 성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김명순, 1999). Vygotsky(1978)는 특히 아동의 발달에서 성인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는데, 근접발달지대에서 성인의 지도와 도움은 영·유아의 잠재적 능력을 개발해서 현재의 발달수준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하였다.

1~3세 영아의 혼자 놀이와 어머니와의 놀이를 비교한 결과 어머니가 참여했을 때 영아들은 2배정도 더 자주 상상놀이에 참여한다는 것이 보고되고 있고, 어머니가 상상놀이를 도와

줄 때 놀이 주제가 보다 더 복잡해지고 놀이 지속시간도 긴 높은 수준의 놀이를 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Fiese, 1990; Haight & Miller, 1993; Slade, 1987). 보통 2세까지 영아의 주요 놀이 파트너는 어머니이며(Dunn & Dale, 1984), 가작놀이는 어머니에 의해 주도된다(Haight & Miller, 1993). 특히,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시 영아의 언어와 놀이발달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어머니와 영아간에 공유되는 참조(shared reference)이다. Corkum과 Moore(1995)는 공유되는 참조란 어머니와 영아가 같은 사물에 대해 시각적인 초점을 맞추면서 영아가 보낸 메시지를 어머니가 확인해주는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였다(Fogel, 1997, 재인용). Baldwin(1995)과 Zukow(1990)는 영아가 어머니와 함께 놀이를 하면서 그 맥락 내의 사물이나 행동과 관련된 언어를 듣고 말할 기회를 갖게 되며, 같은 사물을 공유할 때 어머니는 언어와 놀이에서 상징적인 표상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Fogel, 1997, 재인용). 따라서,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은 영아의 언어와 놀이 발달에 매개자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영아기의 언어와 놀이 및 두 영역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연구들은 대부분이 국외의 연구들이며, 국내의 연구들 중에 언어와 놀이 두 영역에 관해 살펴본 연구는 아직 없다.

그리고 국내의 연구들은 대부분이 2세 이상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여 이보다 더 어린 영아의 언어나 놀이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언어와 놀이 발달은 1세 이전에 시작되며 중요한 인지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1세는 상징적 표상의 사용능력과 같이 기초적인 인지능력의 성장을 반영해주는 시기(Bates, Bretherton, Shore, & McNew, 1983; Bretherton & Bates, 1984)이므로, 1세 때의 언어와 놀이발달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아기 환경으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가정에서 영아의 언어나 놀이를 자연스럽게 관찰하여 보고 이에 대한 어머니의 역할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세 영아의 언어와 가정에서의 놀이에 대한 특성 및 이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어머니의 언어 및 놀이가 영아의 언어 및 놀이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1세 영아의 언어발달은 어떠한가?
2. 1세 영아의 놀이발달은 어떠한가?
3. 1세 영아의 언어발달은 놀이발달과 관계가 있는가?
4. 어머니-영아 놀이상호작용에서 어머니의 언어 및 놀이 참여가 영아의 언어 및 놀이에 대해 갖는 설명력은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세 영아(평균연령 17.52개월; 범위 13개월~23

개월) 42명(남아 21명, 여아 21명)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선정 기준으로는 계층에 따른 차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중류층에 속하는 가정의 영아와 그들의 어머니로 눈덩이

표집(snowballing sampling)을 통하여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30세이고, 교육수준은 대졸 이상이 33명(78.6%), 전문대 졸 4명(9.5%), 고졸 5명(11.9%)이었으며, 비취업자가 81%로 가장 많았다.

2. 연구도구

1) 영아의 언어발달 측정도구

영아의 언어발달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The MacArthur Communicative Development Inventory-Korean(MCDI-K)을 사용하였다. MCDI-K는 Fenson, Dale, Reznick, Thal, Bates, Hartung, Pethick과 Reilly(1991)가 초기 아동의 어휘력을 나타내는 다양한 종류의 단어들로 구성·제작한 The MacArthur Communicative Development Inventory(MCDI)의 어휘부분이었고, 이를 Pae(1993)가 한국 아동에 맞게 개정한 것이었다. MCDI-K는 약 75개의 문법적인 형태소와 단어들을 포함하고 있고, 범주는 소리, 동물, 탈것, 장난감, 음식, 의류, 신체부위, 가정용품, 실내의 것들, 실외의 것들, 장소, 사람, 게임과 일상생활, 동사, 형용사, 시간, 대명사, 질문어, 위치, 양, 보조어, 접속사, 조사, 어미 총 24 범주로 전체 567개의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MCDI-K의 범주를 그대로 사용하되 예비조사를 거쳐 ‘소리’에서 1단어, ‘동사’에서 2단어를 제외시키고 총 564개의 단어들을 사용하였다. 영아의 어휘점수는 어머니에게 영아가 정확하거나 거의 유사하게 말할 수 있는 단어들은 표현단어에, 영아가 그 단어를 이해하거나 알고 있는 단어일 경우 수용단어에 표시하도록 한 후 표시된 단어의 합으로 산출하였다.

2) 영아의 놀이 관찰 분석기준

영아의 놀이발달 정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Belsky와 Most(1981)가 사용한 “영아놀이 분석기준”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Belsky와 Most(1981)의 분석기준에 놀이가 아닌 행동을 0수준으로 추가하고, 영아의 상징놀이를 살펴본 선행연구들(Bornstein, Vibbert, Tal, & O'Donnell, 1992; Tamis-LeMonda & Bornstein, 1991, 1994; Vibbert & Bornstein, 1989)에 기초하여 총 1-12수준으로 나누었는데 이중 1~5수준(놀이감을 입에 넣기, 단순한 조작, 기능적인 놀이, 관계적 놀이, 기능적이고 관련있는 놀이)까지는 비상징놀이수준, 6~12수준(행위가작화, 자신의 가작화, 타인의 가작화, 대치, 연속된 가작화, 연속된 가작화의 대치, 두 번 이상의 대치)은 상징놀이수준으로 이분하였다.

이러한 분석기준에 따라 15초를 1회의 관찰 단위로 하여 어머니와 영아가 20분 동안 놀이 한 것을 총 80회로 나누어 영아의 놀이를 기록·분석하였다. 각 영아가 관찰시간 동안 보인 놀이수준의 평균을 놀이의 ‘평균 수준’이라 정의하였고, 영아가 놀이를 하는 동안에 보인 놀이행동 중 가장 높은 수준의 범주를 놀이의 ‘최고수준’으로 정의하였으며, 영아가 6수준 이상의 놀이를 한 회수, 즉 상징놀이를 보인 회수를 ‘상징놀이 빈도’라 하였다(Newland, 1997). 관찰자간 신뢰도는 Cohen의 Kappa계수(Bakeman & Gottman, 1987)로 .85 이었다.

3) 어머니의 언어 분석기준

어머니가 영아와의 놀이시 사용하는 언어적인 자극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어머니가 영아와 놀이하는 20분 동안 사용한 참조어를 15초 간격으로 나누어 기록하였다. 어머니가 사용한 참조어의 빈도를 어머니의 언어점수로 사용하

였으며, 따라서 점수의 범위는 0~80점이다. 참조어(referential language)란 참조물의 독특한 질에 관하여 영아에게 기술, 명명, 질문하는 형식으로 놀이상황 내의 사물, 활동, 사건에 대해 언어적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Tamis-LeMonda, & Bornstein, 1994). 관찰자간 신뢰도는 Cohen의 Kappa계수(Bakeman & Gottman, 1987)로 .87를 얻었다.

4) 어머니의 놀이참여 관찰 분석기준

어머니의 놀이에 대한 참여와 자극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영아의 놀이 분석기준과 같은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자와 보조연구자 1명간에 Cohen의 Kappa계수(Bakeman & Gottman, 1987)로 .85의 관찰자간 신뢰도를 얻었다.

3. 연구절차

1) 예비조사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분석기준 및 MCDI-K의 문항과 절차상 주의할 점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만 1세 영아 4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예비조사를 통해 MCDI-K에서 적절하지 않은 단어들은 수정·보완하였다. 1차 예비조사에서 수정·보완된 것을 가지고 본 연구 대상이 아닌 만 1세 영아 2명을 다시 선정하여 2차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시 얻은 자료 중 3명의 영아와 어머니의 놀이를 분석한 후 관찰자간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2) 본조사

본 조사는 2000년 1월 17일부터 한 달간 실시되었는데, 연구 대상 어머니와 전화를 통해 영아의 하루 스케줄을 고려하여 가정방문시간을 결정한 후 가정을 직접 개별 방문하였다. 가정방문시 어머니에게 인구론적 가정환경 질문지와 MCDI-K를 작성하도록 한 후, 놀이활동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영아가 카메라에 익숙해진 후 평상시에 어머니와 영아가 주로 놀이를 하는 장소에서 본 연구자가 선행 연구(Newland, 1997; Tamis-LeMonda & Bornstein, 1994)에 기초하여 미리 준비해간 놀이감 상자(책 1권, 공 1개, 큰 접시 2개, 작은 접시 2개, 상자, 나무로 된 단위적목, 도형맞추기 블록, 장난감 전화기 1개, 주전자 1개, 인형 1개, 숟가락 2개, 컵 2개, 그릇 2개)를 제시하였고, 어머니에게 영아와 자연스럽게 놀이를 하도록 요청하였다. 어머니가 놀이감 상자를 여는 것과 동시에 녹화를 시작하였고, 총 20분 동안 어머니와 영아의 놀이를 Video로 녹화하여 본 연구자료로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연구문제 1과 2에 대해서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한 후 성별에 따라 t검증을 실시하였고, 연구문제 3에 대해서는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연구문제 4에 대해서는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및 해석

1. 1세 영아의 언어발달

1세 영아의 언어발달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1>에서와 같이 1세 영아의 수용언어수 ($M=189.98$, $SD=121.42$)는 표현언어수 ($M=50.16$, $SD=69.54$)보다 약 4배정도 많았는데($t=-9.09$, $P<.000$), 이는 1세 영아의 언어발달에 있어서 수용언어가 표현언어보다 더 발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언어의 각 하위영역 모두 평균이 여아가 남아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1> 영아의 언어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및 t-검증 결과

	남(n=21)	여(n=21)	전체(N=42)	<i>t</i>
	<i>M</i> (<i>SD</i>)	<i>M</i> (<i>SD</i>)	<i>M</i> (<i>SD</i>)	
표현언어	38.71(66.77)	61.62(71.96)	50.16(69.54)	-1.07
언어 수용언어	160.10(133.24)	219.86(102.93)	189.98(121.42)	-1.63
전체언어	189.81(183.59)	281.48(150.33)	240.14(170.92)	-1.60

2. 1세 영아의 놀이발달

1세 영아의 놀이 결과를 살펴보면, <표 2>에서와 같이 1세 영아가 보이는 놀이의 평균수준은 3.89로 ‘관계적 놀이’의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 대상인 1세 영아는 평균적으로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장난감을 함께 가지고 있거나, 제작자의 의도가 아닌 부적절한 방법으로 연결하여 놀이하는 수준을 보였다. 한편 1세 영아의 놀이에서 나타난 최고수준의 평균은 9.6으로 ‘사물대치’와 ‘연속된 가작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이다. 즉 1세 영아도 상상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의미없는’ 물체를 가

지고 놀거나 예전에 사용했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물체를 가지고 가작화 행동을 할 수 있고, 단순한 가작화된 행동을 반복하거나 다른 가작화된 도식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상징놀이 빈도는 16.69로 총 80회 중에 상징놀이는 17회 정도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놀이발달 역시 여아가 남아보다 모든 영역에서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영아의 놀이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및 t-검증 결과

	남(n=21)	여(n=21)	전체(N=42)	<i>t</i>
	<i>M</i> (<i>SD</i>)	<i>M</i> (<i>SD</i>)	<i>M</i> (<i>SD</i>)	
평균수준	3.79(1.07)	3.99(0.92)	3.89(0.99)	-0.65
놀이 최고수준	9.28(1.42)	9.90(1.14)	9.60(1.31)	-1.56
상징놀이빈도	15.00(10.56)	18.38(10.86)	16.69(10.72)	-1.02

3. 1세 영아의 언어발달과 놀이발달과의 관계

영아의 언어발달과 놀이발달의 관계에 대한 결과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영아의 놀이발달의 하위영역이 언어발달의 표현언어, 수용언어, 전체언어와 대체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아의 언어발달에서 표현언어는 놀이의 평균수준과 .64로 매우 높은 관계를 보였으며, 상징놀이의 빈도와 영아가 보인 놀이의 최고수준과도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었다. 영아의 수용언어도 놀이의 평균수준과 .49로 비교적 높은 상관이 나타났으며, 상징놀이의 빈도와도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었다. 한편 영아의 수용언어와 놀이의 최고수준과는 상관이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영아의 최고수준의 놀이란 아직 그 수준의 놀이를 자주 보이지 않지만 한 번이라도 높은 수준의 행동이 관찰되었을 경우를 나타내므로 이러한 놀이의 최고수준은 영아의 수용언어 수준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영아의 전체 언어능력은 놀이에서의 평균수준과 .61로 높은 관계가 있었고, 상징놀이의 빈도와 최고수준과도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즉, 영아의 표현하는 능력, 이해하는 능력, 전체적인 언어발달 수준이 높을수록 놀이의 평균수준, 최고수준, 상징놀이빈도도 높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표 3〉 영아의 언어발달과 놀이발달과의 관계
(N=42)

		영아의 놀이		
		평균수준	최고수준	상징놀이빈도
영아의 언어	표현언어	.64**	.38*	.52*
	수용언어	.49**	.28	.43**
	전체언어	.61**	.35*	.52**

*p<.05 **p<.01

4. 영아의 언어 및 놀이발달과 어머니의 언어 및 놀이참여와의 관계

영아의 언어와 놀이의 발달정도와 어머니와

영아의 놀이시 어머니가 보인 언어 및 놀이참여와의 관련 정도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체로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었다. 즉, 어머니가 영아와의 상호작용시 어머니의 언어적 자극이 많고, 어머니의 놀이에 대한 참여가 높을수록 영아의 언어와 놀이의 발달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언어는 영아의 언어 및 놀이에서의 평균수준과 최고수준과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었으며, 영아놀이에서 상징놀이의 빈도와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가 놀이참여시에 영아에게 보인 놀이의 평균수준과 상징놀이의 빈도는 영아의 언어와 영아놀이의 각 하위영역들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어머니가 놀이참여시에 영아에게 보여준 최고수준의 놀이행동은 영아의 언어와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으나, 영아의 놀이의 각 하위영역들과는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머니의 언어와 놀이참여가 영아의 언어 및 놀이에 대해 갖는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해 어머니의 언어와 놀이참여의 하위범주들을 독립변인으로 영아의 언어와 놀이에 대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독립변인들간 다

〈표 4〉 영아의 언어 및 놀이발달정도와 어머니의 언어 및 놀이참여간의 상관계수

(N=42)

	영아의 언어			영아의 놀이		
	표현언어	수용언어	전체언어	평균수준	최고수준	상징놀이빈도
어머니의 언어(참조어 사용)	.40**	.35*	.42**	.39*	.38*	.29
어머니의 놀이참여	평균수준	.38*	.34*	.39*	.50**	.44**
	최고수준	.28	.10	.18	.31*	.33*
	상징놀이빈도	.40**	.37*	.43*	.49**	.46**

*p<.05 **p<.01

중공선성의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독립변인들간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놀이참여에서 평균수준과 상징놀이빈도의 상관이 .87로 높은 상관을 보여 평균수준을 독립변인에서 제외시켰다. 나머지 변인들간의 상관은 .26에서 .58정도의 수준이었으므로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이 비교적 적다고 보아 독립변인에 포함시켜 회귀식에 독립변인으로 투입된 변인은 어머니의 언어 및 어머니의 놀이참여에서 최고수준과 상징놀이빈도였다.

〈표 5〉 영아의 언어에 대한 어머니의 언어와 놀이 참여의 설명력 (N=42)

		영아의 표현언어			
		Beta	b	R ²	F
어머니의 언어		.40**	2.42	.16	7.76**
어머니가 놀이참여시 보인 상징놀이빈도	영아의 수용언어	.37*	6.13	.14	6.52*
		Beta	b	R ²	F
어머니가 놀이참여시 보인 상징놀이빈도	영아의 전체언어	.43**	9.87	.18	8.99**

*p<.05, **p<.01

영아의 표현언어를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은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어머니의 언어로 영아가 표현하는 어휘의 1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의 수용언어, 전체언어를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은 어머니가 영아와의 놀이시에 영아에게 보여 준 상징놀이의 빈도였으

며, 영아가 이해하는 어휘의 14%, 전체 어휘력의 1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놀이시에 놀이 상황내의 사물, 활동, 사건에 대해 언어적으로 말을 많이 해주고, 상징놀이 행동을 많이 보여줄수록 표현언어, 수용언어, 전체 언어점수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6〉 영아의 놀이에 대한 어머니의 언어와 놀이 참여의 설명력 (N=42)

영아놀이의 평균수준					
	Beta	b	R ²	F	
어머니가 놀이참여시 보인 상징놀이빈도	.49***	.07	.24	12.39***	
영아놀이의 최고수준					
	Beta	b	R ²	F	
어머니가 놀이참여시 보인 상징놀이빈도	.46**	.08	.21	10.50**	
영아놀이의 상징놀이빈도					
	Beta	b	R ²	F	
어머니가 놀이참여시 보인 상징놀이빈도	.59***	.86	.35	21.7***	

p<.01, *p<.001

〈표 6〉에 의하면 영아의 놀이에 대해 가장 설명력이 큰 변인은 어머니가 놀이참여시에 보인 상징놀이의 빈도로, 영아 놀이의 평균수준의 24%, 최고수준의 21%, 상징놀이빈도의 35%를 설명하였다. 즉, 어머니가 영아와의 놀이시에 상징놀이를 많이 보여줄수록 영아의 놀이에서 평균수준과 최고수준이 높게 나타나며, 상징놀이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의 언어발달에서 수용언어가 표현언어보다 절수가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1세 영아의 언어발달에서 수용언어가 표현언어보다 더 발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영아가 표현할 수 있는 평균 어휘수는 약 50개, 이해할 수 있는 어휘수는 약 190개로 표현어휘의 약 4배 정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 생후 2년간 영아가 이해하고 있는 어휘가 영아가 산출하는 어휘보다 많다고 보고한 연구들의 결과(임용순, 2002; Benedict, 1979; Fenson et al., 1994; Goldin-Meadow et al., 1976)와 유사한 결과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영아의 어휘를 범주별로 자세히 분석해 보면 영아들은 표현어휘부분에서 음식($M=6.81$, $SD=10.35$)과 동물($M=4.71$, $SD=7.26$)에 관한 명사와 동사($M=6.60$, $SD=15.10$)를 표현할 수 있는 어휘가 많았고, 이해할 수 있는 어휘부분에 있어서는 동사($M=34.45$, $SD=27.57$)와 음식($M=20.26$, $SD=15.66$), 가정용품($M=15.79$, $SD=10.24$)에 관한 어휘들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에 반해 형용사, 부사, 기능어나 기타 다른 범주의 어휘들은 명사나 동사에 비해 아직 잘 표현하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18명의 영아가 초기에 습득한 50개 단어를 수집하여 분석한 Nelson(1973)과 Benedict(1979)의 결과와 일치한다. 즉, 일반적으로 영아들은 사람명칭, 음식, 옷, 동물, 장난감, 자동차류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한 어휘들을 익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영아들이 주위의 인적 구성원의 행위와 대상과 상호작용을 경험

하면서 언어가 형성된다는 것을 보여주며, 따라서 어휘항목은 영아와 주위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경험의 소산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언어의 각 하위영역의 평균이 남아보다 여아가 대체로 높게 나타났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영아의 언어발달에 있어서 영아기부터 언어능력의 성차가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는 Maccoby와 Jacklin(1974)과 McCarthy(195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본 연구의 대상이었던 영아의 연령범위가 11개월로 넓고 이 시기는 언어발달의 변화정도가 빠르게 일어나며 영아마다 개인차가 매우 큰 시기이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차이보다는 각 개인의 개인차와 월령에 따른 차이가 더 크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추후에는 좀 더 개월 범위를 좁혀서 영아 대상을 선정함으로서 성차에 대한 연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1세 영아 놀이의 평균수준은 비상징놀이에 속하는 '관계적 놀이'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어떤 목적이나 정보를 끌어내기 위해 사물들을 가지고 놀이하는 단계를 지나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놀이감을 함께 가지고 있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연결하여 놀이하는 단계의 행동을 흔히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영아가 보이는 최고놀이수준은 놀이에서 사물'대치'가 일어나거나 '연속된 가작화'가 나타나는 상징놀이 수준이며, 상징놀이를 하는 빈도는 총 80회 중 17회 정도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영아의 놀이발달에 대한 연구들(Belsky & Most, 1981; Fenson, 1984; Fenson, & Ramsey, 1980; Howes, Unger, & Seidner, 1989; Nicholich,

1981)에서 보고된 발달적 순서 및 시기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영아의 놀이발달 순서가 보편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놀이에서도 각 하위영역별로 여아가 남아보다 대체적으로 평균이 높게 나타났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나이가 어린 아동에 있어서 상징놀이의 전체량과 상상의 경향에는 성차가 없다고 보고한 연구들(문현주, 1996; Howes, Unger, & Seidner, 1989; Johnson, Eshler, & Bell, 1980; Johnson, Christie, & Yawkey, 1987)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물대체능력(Fein, Johnson, Kosson, Stork, & Wasserman, 1975)과 가상놀이의 주제(McLoyd, 1980; Matthew, 1981)에서 성차가 있다는 점에 일치되는 결과를 보이는 연구의 대부분이 4세 이상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령이 낮은 영아의 놀이에서는 성차가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놀이에서 성차가 나타나는 시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연령의 범위를 확장한 종단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영아의 언어발달은 놀이와 대체적으로 높은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영아의 언어발달수준이 높을수록 놀이의 발달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영아의 언어와 놀이와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Kelly & Dale, 1989; Newland, 1997; Smith & Sachs, 1990; Tamis-LeMonda & Bornstein, 1989, 1990, 1994)의 결과와 일관되는 결과이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언어에서 수용언어와 놀이의 최고수준과의 관계를 제외하고는 표현언어와 수용언어, 전체언어능력은 놀이의 평균수준과 상징놀이의 빈도와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1개월 영아를 대

상으로 했던 Newland(1997)의 연구에서 놀이의 평균수준과 상징놀이 수준이 영아의 수용언어와 관계가 있으나, 표현언어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된 것과는 부분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Newland(1997)의 연구에서 놀이와 표현언어와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11개월 영아들의 표현하는 능력은 이제 막 출현하는 시기이고(Bloom, 1993), 상징놀이 기술 역시 출현하는 시기로 영아마다 개인차가 상당히 다른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령이 조금 더 높고 단어를 표현하며 조합하기 시작한 영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Kelly & Dale, 1989; Smith & Sachs, 1990)에서는 표현언어와 수용언어가 모두 상징놀이의 수준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본 연구 대상은 Newland(1997)의 연구대상 연령인 11개월보다 2개월 더 높은 13개월 이상의 영아를 대상으로 했으며, 평균 연령이 17.5개월로 선행연구들보다 높았기 때문에 언어와 놀이의 각 하위영역들간의 관계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인지발달 이론에 의하면 생후 2세 경, 정신적 표상(mental representation)기능이 변화할 때 언어뿐 아니라 놀이와 같은 표상 기술에도 영향을 미친다(McCune-Nicolich, 1981; Thelen & Fogel, 1989)고 설명하고 있다(신은수 외, 2002, 재인용). McCune-Nicolich(1981)는 놀이와 언어발달에서의 일치를 가정한 반면 Gopnik & Meltzoff(1987)는 인지와 언어 기술간에 특별한 의미론적 연결이 있음을 주장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영아의 언어발달과 놀이발달의 관계는 상징놀이가 언어의 의미론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추후분석에서 영아의 수용언어에서 동사에 대한 이해수준과 놀이의 평균수준($r=.41, p=0.01$) 및 상징놀이빈

도($r=.32$, $p=.05$)간에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는데, 이는 Smith와 Sachs(199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Smith와 Sachs(1990)의 연구에서 동사에 대한 영아의 이해는 사물을 가지고 놀이할 때의 행위자 역할에서 타인을 고려할 수 있는 능력과 사물에 대해 연속적이고 상정적인 행동을 보이는 능력과 같은 인지적인 능력과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사에 대한 이해는 가작화에 대한 이해와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영아의 언어발달과 놀이발달은 구조적·시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언어와 놀이발달 모두 상정적인 표상의 출현에 기초하며 표상의 발달 정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어머니의 언어와 놀이참여의 하위영역은 영아의 언어와 놀이의 발달정도와 대체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 별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언어는 영아의 표현언어, 수용언어, 전체언어 능력과 비교적 높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어머니가 영아와의 놀이시에 참조어를 많이 사용할수록 영아의 언어발달수준도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언어발달이 공유되는 참조물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다고 보고한 연구들(Dunham & Dunham, 1992; Evans-Trip, 1991; Tamis-LeMonda & Bonstein, 1989; Tomasello, 1990; Tomasello & Farrar, 1986)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어머니의 언어는 영아의 놀이에서 평균수준 및 최고수준과도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머니가 참조어를 많이 사용할수록 영아 놀이의 평균수준과 최고수준이 높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Fiese(1990)의 걸음마기 영아와 어머니 놀이에 대한 관찰연구에서 어머니가 질문과 지시를 통한 언어적인 놀이유도 행

동을 사용했을 때 신체적 놀이유도 행동을 사용할 때보다 유아의 놀이수준이 증가했다고 보고한 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어머니의 놀이참여와 영아의 언어 및 놀이발달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영아와의 상호작용시 어머니 놀이참여의 평균수준과 상정수준 모두 영아의 언어 및 놀이와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가 놀이참여시 보여준 최고수준은 영아의 언어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영아 놀이의 하위영역들과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영아와의 놀이시에 놀이에 참여하고, 어머니가 놀이참여시에 보인 놀이의 평균과 상정놀이의 빈도가 높을수록 영아의 표현언어, 수용언어, 전체 언어 및 영아의 놀이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가 놀이에서 최고수준의 놀이를 많이 보여줄수록 영아의 놀이수준이 높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Newland(1997)의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영아와의 놀이시에 놀이감 교환을 많이 한 경우 영아의 표현언어와 전체언어점수가 높았고, 놀이감을 잘 수용해 준 경우 영아의 수용언어점수가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어머니가 영아와의 놀이시에 영아가 주도하는 놀이감 교환이나 놀이행동에 얼마나 잘 반응하는가 하는 것은 영아의 언어능력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Rogoff와 그의 동료들(1993)은 어머니와 영아가 함께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참여자인 어머니의 지도를 통해 영아의 놀이수준이 높아졌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볼 때 영아와의 놀이시 어머니의 참여와 어머니의 놀이행동은 영아의 언어와 놀이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영아가 놀이를 할 때 어머니가 사물과 행동에 관련된 언어를 말하고 지지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반응적이고, 주의

끌기 전략을 사용하며, 비계 설정을 하느냐 하는 것은 영아의 언어와 놀이발달에 중요한 맥락을 형성한다(Dunn & Wooding, 1977; Ervin-Tripp, 1991; Haight & Miller, 1993; Rozoff, Mistry, Goncu, & Mosier, 1993; Tamis-LeMonda, Bornstein, Cyphers, Toda, & Ogino, 1992 등)고 할 수 있다. 이는 사회적 상호작용주의 관점 중 아동이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여 도달할 수 있는 수준과 아동의 실제적인 정신연령간의 차이인 근접발달지대(zone of proximal development)라는 개념을 통해 영아의 발달과 학습에서 성인의 도움을 강조한 Vygotsky(1934)의 이론을 지지한다.

본 연구에서 영아의 언어 및 놀이와 어머니의 언어 및 놀이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관련성을 나타내는 수치가 미국과 일본의 어머니들과 영아를 비교한 연구(Tamis-LeMonda, Bornstein, Cyphers, Toda, & Ogino, 1992)나 이를 살펴본 선행연구들(Tamis-LeMonda & Bornstein, 1994)보다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이 영아와 상호작용을 할 때 다른 나라의 어머니들보다 언어적인 자극을 더 많이 제공하며, 놀이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상호작용을 해주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특징을 반영한다고도 볼 수 있다. 5세 아동과 어머니의 비디오 시청 후 언어적 상호작용을 분석한 임지연(2002)의 연구에서도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미국 어머니들에 비해 전체 발화의 양은 매우 많았으나 토의 주제와 관련된 발화 양의 비율은 아주 적었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자녀와의 상호작용시 언어적 발화를 많이 하고 어머니편에서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되나 이에 대하여 여러

문화 집단을 비교하는 포괄적이고 세부적인 비교문화적 연구들과 우리나라 어머니-아동간 언어적 상호작용에 대한 종단적 연구들이 추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영아의 언어와 놀이에 대한 가장 큰 설명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먼저 영아의 표현어휘의 수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참조어가 가장 설명력이 크게 나타났으며, 이해할 수 있는 어휘수와 전체적인 어휘수에 있어서는 어머니가 영아와의 놀이시에 보인 상징놀이빈도가 가장 설명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아의 언어발달이 어머니의 언어에 의해서만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언어와 놀이행동 모두에 의해 설명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영아와 함께 있을 때 그 상황내의 사물, 활동, 사건에 대해 언어적으로 기술·명명·질문 등을 많이 할 경우 영아가 언어를 표현하는 능력이 높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으며, 어머니가 영아와의 놀이시에 상징놀이행동을 많이 보여줄수록 영아가 이해하는 능력이 높게 나타나며 전체적인 언어능력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영아의 놀이에서 각 하위영역은 모두 어머니의 상징놀이빈도가 가장 큰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영아와의 놀이시에 상징놀이를 많이 보여줄 경우 영아의 놀이수준의 평균과 최고수준이 높게 나타나며 영아의 상징놀이의 빈도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머니와 영아가 함께 놀이할 때 어머니는 그 놀이 맥락 내에서의 놀이감이나 상호작용시에 나타난 행동이나 사건 등에 대해 설명이나 묘사를 해주고 명명해준다. 영아는 어머니의 이러한 참조어를 통해 어머니와 함께 공통된 사물이나 행동 등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Baldwin & Markman, 1989), 이러한 맥락을 통해 영아는 상징적인 표상을 언어로 혹은 놀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어머니의 언어와 놀이는 영아의 언어와 놀이발달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며, 1세 경이 끝나가면서 영아는 어머니와 가작놀이에서 놀이를 주도하기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Haight & Miller, 1993). 따라서 영아의 언어와 놀이의 발달은 어머니의 언어와 놀이참여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영아의 언어와 놀이발달에 있어서 어머니의 언어와 놀이참여 행동 모두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이 사회경제적 수준이 중류층에 속하는 가정의 영아들이었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영아의 언어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의 부재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에게 질문지를 실시하여 어머니가 평가한 영아의 어휘수를 가지고 영아의 언어능력을 평가하였는데, 추후에는 우리나라 영아들을 종단적으로 관찰하거나 영아의 언어발달을 측정하기 위한 표준화된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영아기는 일생을 통해서 발달적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시기이므로 영아를 대상으로 한 국외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연구대상의 월령을 폭이 좁게 하여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대상의 표집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았으나 추후에는 좀 더 월령의 범위를 좁혀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특정한 시기의 발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언어나 놀이 발달에 관한 연구에서 거의 다루어지고 있지 않은 1세 영아를 대상으로 언어와 놀이 두 영역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1세 영아의 상징적인 표상능력이 언어와 놀이에 모두 반영되는 것을 나타남을 확인하였다는 점, 가정에서 직접 영아의 놀이와 어머니의 언어와 놀이를 관찰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살펴보았다는 점, 언어와 놀이의 발달에 있어서 매우 빠른 변화가 일어나는 영아기의 언어 및 놀이가 어머니의 언어 및 놀이와 관계가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어머니의 역할과 중요성을 시사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겠다.

참 고 문 헌

- 김명순 (1999).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 올바른 보육은
요람에서부터, 제 7회 삼성복지재단 학술대회
출판물, pp. 87-115.
- 문현주 (1996). 20-35개월 유아의 가상놀이 발달에 관
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
논문.
- 신은수 · 김명순 · 신동주 · 이종희 · 최석란 (2002). 놀
이와 유아.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임용순 (2002). 한국 영아의 어휘 발달과 어머니와의
언어적 상호작용. 연세대학교 대학원 아동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지연 (2002). 어머니의 대화전략과 아동의 비디오동
화 이해능력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아동
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 Bakeman, R., & Gottman, J. (1987). Applying observa -
tional methods : A systematic view. In J. D.

- Osofsky(Ed.), *Handbook of infant development*. NY : John Wiley & Sons.
- Baldwin, D. A. & Markman, E. M. (1989). Establishing word-object relations : A first step. *Child Development*, 60, 1291-1306.
- Bates, E., Benigni, L., Bretherton, I., Camaioni, L., & Volterra, V. (1979). *The emergence of symbols : Cognition and communication in infancy*. San Diego, CA : Academic Press.
- Bates, E., Bretherton, I., Shore, C., & McNew, S. (1983). Names, gestures and objects : Symbolization in infancy and aphasia. In K. Nelson (Ed.), *Children's language Vol. 4*. (pp. 59-123). Hillsdale, NJ : Erlbaum.
- Bates, E., O'Connell, B., & Shore, C. (1987). Language and communication in infancy. In J. D. Osofsky(Ed.), *Handbook of infant development* (2th ed.). New York : Wiley.
- Belsky, J., & Most, R. (1981). From exploration to play : A cross-sectional study of infant freeplay behavior. *Development Psychology*, 17, 630-639.
- Benedict, H. (1979). Early lexical development : Comprehension and production. *Journal of Child Language*, 6, 183-200.
- Bloom, L. (1973). *One word at a time : The use of single word utterances before syntax*. The Hague, Netherlands : Mouton.
- Bloom, L. (1993). *The transition from infancy to language : Acquiring the power of expression*.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ornstein, M. H., Vibbert, M., Tal., & O'Donnell, K. (1992). Toddler language and play in the second year : Stability, covariation, and influences of parenting. *First Language*, 12, 323-338.
- Bretherton, I., & Bates, E. (1984). The development of representation from 10 to 28 months : Differential stability of language and symbolic play. In R. N. Emde & R. J. Harmon(Eds.), *Continuities and discontinuities in development*. (pp. 229-261) New York : Plenum.
- Brown, R. (1973). *A First language : The early stages*.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 Corrigan, R. (1978). Language development as related to stage 6 object permanence development. *Journal of Child Language*, 5, 173-190.
- Corrigan, R. (1979). Cognitive correlates of language : Differential criteria yield differential results. *Child Development*, 50, 617-631.
- de Villiers, P. A., & de Villiers, J. G. (1988). Language development. In M. H. Bornstein & M. E. Lamb(Eds.), *Developmental psychology : An advanced textbook*(pp. 337-418). Hillsdale, NJ : Erlbaum.
- Dunham, P., & Dunham, R. (1992). Lexical development during middle infancy : A mutually driven infant-caregiver process. *Developmental Psychology*, 28, 414-420.
- Dunn, J., & Woooding, C. (1977). Play in the home and its implications for learning. In B. Tizard & D. Harvey(Eds.) *Biology of play*(pp.45-48). London : Heinemann.
- Dunn, J., & Dale, N. (1984). I a daddy : 2-year-old's collaboration in joint pretend with sibling and with mother. In I. Bretherton(Ed.), *Symbolic play*(pp. 131-158). New York : Academic.
- Ervin-Tripp, S. (1991). Play in language development. In B. Scales, M. Almy, A. Nicolopoulou, & S. Ervin-Tripp(Eds.), *Play and the social context of development in early care and education*(pp. 84-97). New York : Teachers College Press.
- Fein, G. G., Johnson, D., Kosson, N., Stork, L., & Wasserman, L. (1975). Stereotypes and preferences in the toy choices of 20-month-old boys and girls. *Developmental Psychology*, 11, 527-528.
- Fenson, L. (1984). Developmental trends for action and speech in pretend play. In I. Bretherton(Ed.), *Symbolic play : The development of social under-*

- standing*(pp. 249-269). New York : Academic.
- Fenson, L., & Ramsey, D. (1980). Decentration and integration of the child's play in the second year. *Child Development*, 51, 171-178.
- Fenson, L., & Schell, R. E. (1986). The origins of exploratory play. In P. K. Smith(Ed.). *Children's play : Research and developments and practical applications* vol.6. (pp. 18-32). New York : Gordon & Breach.
- Fenson, L., Dale, P. S., Reznick, J. S., Bates, E., Thal, D. J., & Pethick, S. J. (1994). Variability in early communication development.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Serial No. 242).
- Fogel, A. (1997). *Infancy : Infant, family, and society*. New York : West Publishing Company.
- Goldin-Meadow, S., Seligman, M. E. P., & Gelman, R. (1976). Language in the two year old. *Cognition*, 4, 189-202.
- Gopnik, A., & Meltzoff, A. N. (1984). Semantic and cognitive development in 15-to 21-month old children. *Journal of Child Language*, 11, 495-513.
- Gopnik, A., & Meltzoff, A. N. (1987). The development of categorization in the second year and its relation to other cognitive and linguistic developments. *Child Development*, 58, 1523-1531.
- Haight, W. L., & Miller, P. J. (1993). *Pretending at home : Early development in a sociocultural context*. Albany, NY :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Harris, P., & Kavanagh, R. (1993). Young children's understanding of pretense.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8(1, Serial No. 231).
- Howes, C., Unger, O., & Seidner, L. B. (1989). Social pretend play in toddlers : Parallels with social play and with solitary pretend. *Child Development*, 60, 77-84.
- Huizinga, J. (1955). *호모루덴스 : 놀이와 문화에 관한 한 연구(Homo ludens : A study of the play-element in culture)*. 김윤수(역). 서울 : 도서출판 까치.
- Johnson, J. E., Christie, J. F., & Yawkey, T. D. (1987). *Play and early childhood development*. Illinois : Scott, Foresman and Company.
- Johnson, J. E., Ershler, J., & Bell, C. (1980). Play behavior in a discovery-based and a formal education preschool program. *Child Development*, 51, 271-274.
- Kelly, C., & Dale, P. (1989). Cognitive skills associated with the onset of multiword utterances.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32, 645-656.
- Lifter, K., & Bloom, L. (1989). Object knowledge and the emergence of language.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12, 395-423.
- Maccoby, E. E., & Jacklin, C. N. (1974). *The psychology of sex differences*. Stanford, CA : Stanford University Press.
- Matthew, W. S. (1981). Sex-role perception, portrayal, and preference in the fantasy play of young children. *Sex Role*, 1, 979-987.
- McCarthy, D. (1952). Factors that influence language growth : Home influence. *Elementary English*, 29, 421-428.
- McLoyd, V. C. (1980). Verbally expressed modes of transformation in the fantasy play of black preschool children. *Child Development*, 51, 1138-1139.
- Nelson, K. (1973). Structure and strategy in learning to talk.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38(1-2, Serial No. 149).
- Newland, L. A. (1997). *Language, play, and toy sharing in infan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Utah State.
- Nicolich, L. M. (1981). Towards symbolic functioning : Structure of early pretend games and potential

- parallels with language. *Child Development*, 52, 785-797.
- Pae, S. (1993). *Early vocabulary in Korean : Are nouns easier to learn than verb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Kansas, Kansas, USA.
- Piaget, J. (1968). *Six psychological studies*. New York : Vingtage Books.
- Rogoff, B., Mistry, J., Goncu, A., & Mosier, C. (1993). Guided participation in cultural activity by toddler and caregiver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8(Serial No. 236).
- Smith, C., & Sachs, J. (1990). Cognition and the verb lexicon in early lexical development. *Applied Psycholinguistics*, 11, 409-424.
- Tamis-LeMonda, C., & Bornstein, M. (1989). Habituation and maternal encouragement of attention in infancy as predictors of toddler language, play, and representational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60, 738-751.
- Tamis-LeMonda, C., & Bornstein, M. (1990). Language, play, and attention at one year.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13, 85-98.
- Tamis-LeMonda, C., & Bornstein, M. (1991). Individual variation, correspondence, stability, and change in mother and toddler play.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14, 143-162.
- Tamis-LeMonda, C., & Bornstein, M. (1994). Specificity in mother-toddler language-play relations across the second year. *Developmental Psychology*, 30, 283-292.
- Tamis-LeMonda, C., Bornstein, M., Cyphers, L., Toda, S., & Ogino, M. (1992). Language and play at one year : A comparison of toddlers and mothers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5, 19-42.
- Tizard, B., Philips, J., & Plewis, I. (1976). Play measures and their relation to age, sex, and I.Q.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17, 251-264.
- Tomasello, M. (1990). The role of joint attentional processes in early language development. *Language Sciences*, 10, 68-88.
- Tomasello, M., & Farrar, M. J. (1984). Cognitive bases of lexical development : Object permanence and relational words. *Journal of Child Language*, 13, 495-505.
- Vibbert, M., & Bornstein, M. H. (1989). Specific associations between domains of mother-child interaction and toddler referential language and pretense play.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12, 163-184.
- Vygotsky, L. S. (1978). *Mind in society : The development of higher mental processes*(M. Cole, V. John-Steiner, S. Scribner, & E. Souberman, trans.).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Press.